

한국에 카운터테크닉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었군요.

네, 한국에 좋은 무용수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재능 있는 무용수들과 함께 카운터테크닉을 공유하며 춤을 출 수 있어서 뜻깊습니다.

카운터테크닉, 어떤 것인가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카운터테크닉은 무용수의 훈련 방법으로 무용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카운터테크닉을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선 수년이 걸리지만, 터득한다면 건강하게 오랜 시간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게 해줘요. 더 나아가, 카운터테크닉 원리는 무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신체 움직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카운터테크닉은 무엇을 기반으로 정립됐나요?

센터(코어)로부터 움직임이 비롯되는 테크닉은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이후, 저에게 맞는 훈련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던 중 신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방향성만이 아닌 반대 방향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본 원리인 인지를 통해 본인의 신체를 자각하며 심신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영향을 받았어요. 이외에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했고, 25년간의 연구 끝에 카운터테크닉을 정립했습니다.

워크숍 내용은?

워크숍은 25명의 전문무용수, 성균관대학교 컨템포러리댄스 전공 학생들 그리고 김나이무브먼트컬렉티브(NKMC) 무용수들 대상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진행했어요. 전문무용수 워크숍에서는 카운터테크닉 클래스와 레퍼토리 및 즉흥 수업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론을 기반한 카운터테크닉 수업에 전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나이무브먼트컬렉티브(NKMC)와는 카운터테크닉 워크숍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을 둔 작업을 통해 심도 깊은 창작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1~2주라는 짧은 기간에 카운터테크닉을 적용하고 연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전반적으로 카운터테크닉의 소개에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댄서만의 특징을 발견했나요?

이해력과 관찰력이 좋아서 배운 것을 신속하게 습득하며 디테일을 잡아내는 데 훌륭해요. 그리고 동작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하기 때문에, 신체 에너지의 강약 조절을 잘 활용하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안한 점이 있다면요?

카운터테크닉은 '본인의 신체'를 갖고 춤을 추는 것을 강조해요. 전반적으로, 무용수들은 이상적인 신체에 자신을 대조하며 춤을 추죠. 이번엔 진행한 모든 수업에서는 "본인의 신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춤을 추길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워크숍 이후, 김나이무브먼트컬렉티브(NKMC)와 창작 작업을 진행하였죠?

네, 작년에 카운터테크닉 자격증 취득한 김나이씨의 단체가 저를 초청했고, 카운터테크닉을 활용해서 신작 <BODY RELIC>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이지요.

작업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연약함(vulnerability)' 과 '굴복하다(surrender)' 라는 두 개념을 기반으로 이 개념들이 신체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어요. 현 시대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상으로 사람들은 '연약함'을 인지하고 또한, 이런 속수무책인 상황에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분리되고 관계적 고립으로 인한 신체는 유물이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에게 춤은 어떤 의미인가요?

춤을 출 수 없다면 불행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춤이 저한테 행복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어요. 춤은 또한, 개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춤은 인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